KASBP NJ/NY
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NEW JERSEY / NEW YORK

보도자료 PRESS RELEASE

즉시 배포 · 2026년 10월 12일

KASBP NJ/NY, ‘From Unmet Need to Patient Access’ 컨퍼런스 개최

연구실에서 환자까지, 신약개발 전 과정을 한자리에서 조망

[뉴저지=2026년 10월 12일] 재미한인제약인협회(Korean American Society in Biotech and Pharmaceuticals, KASBP) 뉴저지·뉴욕 지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SK바이오팜 및 미국 자회사 SK Life Science와 함께 ‘From Unmet Need to Patient Access’를 주제로 신약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SK바이오팜과 SK Life Science를 비롯해 제약·바이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약 170명이 참석해, 신약이 연구실에서 출발해 임상과 규제 절차를 거쳐 실제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과 각 단계에서의 주요 과제, 의사결정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열린 KASBP NJ/NY·SK바이오팜 공동 컨퍼런스 ‘From Unmet Need to Patient Access’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ASBP NJ/NY가 기획한 이번 컨퍼런스는 특정 제품이나 기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데 그치기보다, 하나의 신약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에서 어떤 과학적·임상적·규제적·사업적 판단이 필요한지를 하나의 연속된 여정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국 기업이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과 연구개발에서부터 미국 FDA 승인과 현지 직접 상업화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XCOPRI®)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신약개발 과정에서 마주한 주요 의사결정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연구개발에서 환자 접근성까지

프로그램은 ▲Discovery & R&D ▲Clinical & Regulatory ▲Commercial & Beyond의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Discovery & R&D’ 세션에서는 New York Medical College와 Rutgers Robert Wood Johnson Medical School 교수진이 참여해 뇌전증 분야의 미충족 의료수요와 신약개발의 과제를 조명했다. 이어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경험한 주요 전환점과 의사결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실질적인 교훈을 공유했다.

‘Clinical & Regulatory’ 세션에서는 미국 FDA의 신약 심사 및 허가 과정과 세노바메이트의 임상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시험 설계부터 허가까지의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봤다.

마지막 ‘Commercial & Beyond’ 세션에서는 의약품 가격 및 시장 접근 전략, 미국 내 상업화, 사업 확장 및 환자 접근성 확대를 중심으로 신약이 FDA 승인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세노바메이트의 미국 개발 및 상업화 경험을 공유한 ‘Lessons Learned’ 세션은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실제 경험과 시행착오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KASBP, 전문가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KASBP NJ/NY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연결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신약개발 전 과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다.

강민석 KASBP NJ/NY 지부 회장은 “한국 기업이 하나의 신약을 처음 발굴하는 단계부터 미국 FDA 승인과 현지 상업화까지 직접 이뤄낸 여정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한인 과학자와 제약·바이오 전문가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는 특정 제품의 성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의 신약이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연구, 임상, 허가, 시장 접근과 상업화의 각 단계에서 어떤 고민과 의사결정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기획했다”며 “대학원생부터 연구자, 업계 전문가, 창업가에 이르기까지 참석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경력이 신약개발이라는 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만남을 계기로 KASBP NJ/NY가 학계와 산업계를 연결하고, 한국과 미국의 바이오·제약 생태계를 잇는 플랫폼으로서 보다 다양한 협력과 교류의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KASBP NJ/NY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학계, 산업계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

KASBP NJ/NY 소개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 뉴저지·뉴욕 지부는 뉴저지·뉴욕 지역의 한인 과학자와 제약·바이오 전문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컨퍼런스와 Linkups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한국과 미국의 제약·바이오 생태계를 잇는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